



미 증시, 경기둔화 우려 지속되며 약세

미국 증시 리뷰

8 일(수) 미국 3 대 증시는 신규 재료 부재 속 베이지북을 통해 확인된 7~8 월 미국 경제 활동 둔화, 주요 연준 위원들에 연내 테이퍼링 발언 등에 영향을 받으면서 하락 마감(다우 -0.2%, S&P500 -0.1%, 나스닥 -0.5%). 업종별로는 유틸리티(+1.8%), 필수소비재(+0.8%), 부동산(+0.6%) 등이 강세, 에너지(-1.3%), 소재(-1.0%), 커뮤니케이션(-0.4%) 등이 약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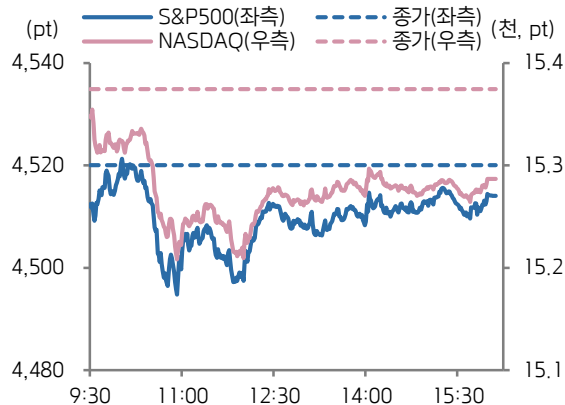
연준은 베이지북을 통해 7~8 월 미국 경제 활동이 “완만한 속도로 둔화”됐다고 진단하면서, 지난 7 월 베이지에서 “탄탄한 성장세”에 비해 경기 평가를 하향. 반도체 공급난에 따른 차량판매 부진, 공급 부족에 따른 주택 판매 둔화, 델타 변이 확산 등이 경제활동을 제약하고 있다고 진단. 고용시장과 관련해서는 이직 증가, 조기 퇴직, 추가실업수당프로그램 등으로 기업들의 인력 부족 현상이 일어났다고 평가하면서도 전반적인 고용 증가세는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

뉴욕 연은 총재는 완전고용까지는 갈 길이 멀지만 경제가 예상대로 개선 시 연내 테이퍼링을 시작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 동시에 테이퍼링이 종료되더라도 연준의 정책 기조는 완화적일 것이라고 언급.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는 현재 일자리는 많은 상태이며, 코로나를 잘 통제할 수 있다면 내년 고용시장은 강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평가. 이와 관련해 연내 테이퍼링을 시작해 내년 상반기 내 종료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강조.

미국 증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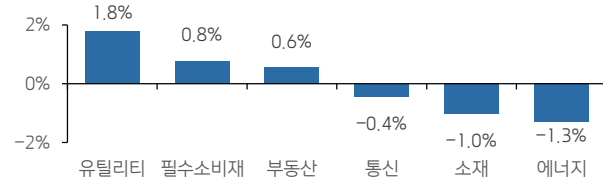
연준 베이지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 여름 이후 미국 내 델타 변이 확산으로 전반적인 산업 및 고용시장에 부정적인 충격을 받은 모습. 이로 인해 경기 둔화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 현재 미국 내 확진자 신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으며, 여름 중 경제활동 둔화는 일시적인 측면이 존재하므로, 미국 경제 정상화 추세는 유효하다고 판단. 연준이 연내 테이퍼링을 시작하는 것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는 것도 유사한 맥락에서 볼 수 있음. 최근 미국 증시가 정체된 주가 흐름을 보이는 것은 경기 둔화 현실화 가능성보다는 지속적인 주가 상승에 대한 피로감 누적, 신규 재료 및 이벤트 부재에 따른 숨고르기 성격이 더 강한 것으로 판단.

S&P500&NASDAQ 일중 차트(9월 8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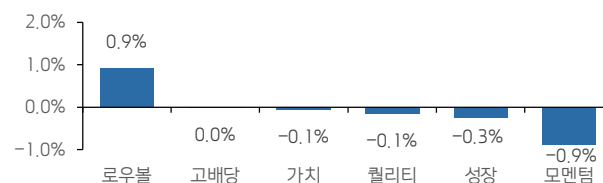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9월 8일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9월 8일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1.68% 하락, MSCI 신흥국 ETF 는 1.46% 하락. 유렉스 야간선물은 0.49%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167.55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보험권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
주요 체크 사항	1.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에 따른 현선물 시장 수급 급변 가능성 2. NAVER, 카카오 등 전거래일 폭락한 대형 플랫폼주들의 주가 반등 여부 3. 미국 경기 둔화 우려 재부각에 따른 시클리컬 업종들의 주가 변동성 확대 가능성

한국 증시 리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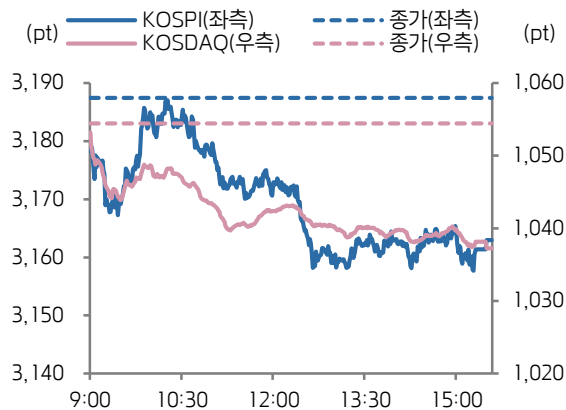
8 일(수) 코스피는 미국발 경기 둔화 우려 확산 속 원/달러 환율 급등 여파로 위험회피심리가 확산된 가운데, NAVER(-7.9%), 카카오(-10.1%) 등 대형 플랫폼 성장주들이 금융당국의 규제 리스크 우려로 급락한 영향으로 하락 마감. 코스닥도 2차전지를 제외한 제약, 바이오 등 여타 대형 시가총액 상위주들이 동반 약세를 보임에 따라 1.6%대 급락세로 마감(코스피 -0.8%, 코스닥 -1.6%).

업종별로는 보험(+1.4%), 철강금속(+0.7%), 금융(+0.5%) 등이 강세, 의료정밀(-4.8%), 서비스(-4.5%), 의약품(-2.6%) 등이 약세. 수급별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835 억원, 1,186 억원 동반 순매도한 반면, 개인이 4,232 억원 순매수를 기록.

한국 증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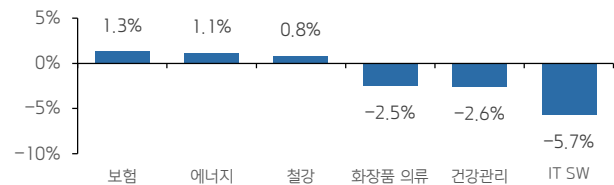
한국 증시는 미국의 경기 둔화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ECB의 9월 통화정책회의, 국내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에 영향을 받으면서 변동성 확대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 전거래일 미국 증시에서 경기 둔화 우려로 시클리컬 업종을 중심으로 약세 압력을 받았던 만큼, 국내 증시에서도 해당 업종들의 주가 변동성 확대에 유의할 필요. 또한 전거래일 금융당국의 규제 리스크로 폭락세를 보였던 NAVER, 카카오 등 대형플랫폼주들의 주가 반등 여부도 주목해야할 이벤트라고 판단. 통상적으로 선물옵션 동시만기일 당일에는 현선물 시장이 외국인과 기관의 기계적인 수급으로 변동성이 확대되는 경향이 있는 만큼, 금일 수급적인 요인으로 시장 움직임이 달라질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

KOSPI & KOSDAQ 일중 차트(9월 8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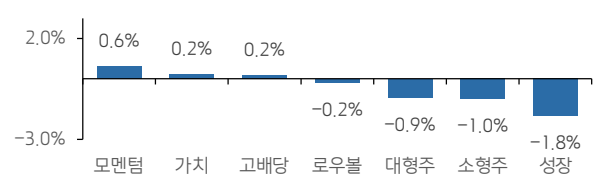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9월 8일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9월 8일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Quantiwise,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사, 배포,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